‘빈수레’ 6월 국회 … 그래도 ‘전두환 추징법’ ‘5·18曲’은 건졌다

국정원 대선개입·NLL발언 싸고 정쟁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등 민생 처리무산

민생국회를 추구했던 여야가 저조한 성과 끝에 2일 6월 임시국회의 문을 닫는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을 둘러싼 정쟁에 휘말려 상당수 상임위가 성과를 못 낸 때문이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박관현법) 등 5·18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 이번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나름대로 성과로 여겨진다.

법사위는 또 1일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재정부담 확대 등을 이유로 든 기획재정부의 제동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7개월째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재부 논의 등을 지켜보며 일단 소위에 회부하자는 주장을 폈다.

법사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놓고 입씨름만 반복했다.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여야 원내대표가 ‘6월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선(先) 사개특위-후(後) 법사위 논의’ 입장을 보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정무위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처벌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결국 상정하지 못했다. 또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나 비은행권 금융사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를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다음 회기로 넘겼다. 특히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 4월 국회부터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킨 부당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방지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FIU법, 하도급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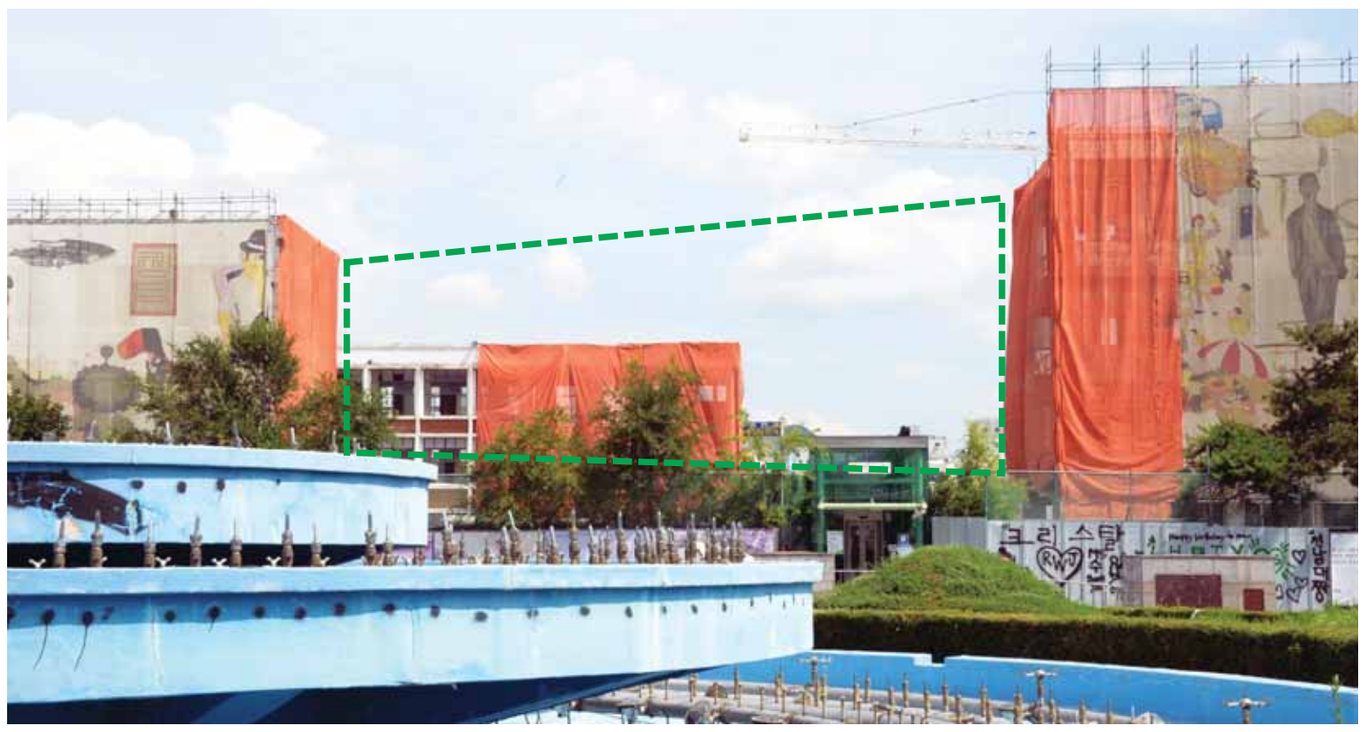
환경노동위는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통상임금제도 개편 문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국토교통위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산업통상자원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밀양 송전탑 지역주민 지원 법안 처리에 각각 실패했다. 국방위가 내놓은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 법안 역시 여성계의 반발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교문위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방대학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부지에 포함된 옛 전남도청 별관에 대한 부분 철거작업이 지난달 말 완료됐다. 금남로 분수대를 축으로 맨왼쪽 건물은 옛 전남도청, 오른쪽은 별관으로 두 건물 사이 빈 공간(24m·점선표시)이 철거된 부분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철거된 공간에 구조물을 설치해 건물의 흔적을 상징적으로 보존할 방침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옛 도청 별관 일부 철거

추진단, 24m 헐고 상징 조형물 설치

E등급 판정 남은 건물 안전보강키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부지에 포함된 5·18 광주항쟁 공간인 옛 전남도청 별관의 일부가 헐렸다. 남겨진 보존공간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징적 건물로 남게 됐으나, 5월 관련 단체들은 활용방안을 주문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일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별관(전체 길이 54m·4층) 가운데 24m를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5·18 단체들이 “5·18 광주항쟁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며 2008년부터 2년 여 동안 철거를 반대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추진단은 지난달 말 옛 도청 별관의 부분 철거작업을 완료했으며, 철거된 부분에 철제 프레임 같은 강구조물을 설치, 외형적으로 별관과 이어진 조형물을 만들 방침이다. 이 조형물은 지표면으로부터 2층 높이에 설치되며, 그 아래 공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출입구로 이용된다.

추진단은 철거하고 남은 보존대상 건물(30m)에 대한 안전보강 공사를 실시하되, 미사용 공간으로 남겨둘 계획이다. 건물 안전진단 결과 최저 등급인 E등급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E등급은 건물 주요 부재의 심각한 변형이 생겨 즉각 사용 중단하거나, 보강, 개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추진단 관계자는 “5월 단체들이 보존공간의 활용방법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건물 자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불가입장을 밝혔었다”며 “시민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청별관은 옛 전남도청을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건물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에 들어 있다. 지난 2008년 6월 옛 전남도청보존 공동대책위 등이 천막 농성 돌입하면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가 2년여 동안 늦춰졌다. 광주시가 지난 2010년 추진단의 별관 일부 보존안을 전격 수용해 부문 철거작업이 진행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식지 않은 NLL 공방

새누리 “원본에 음원까지 공개를”

민주당, 열람·공개 사이 갈팡질팡

서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7월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대화록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은 1일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현행법대로 열람에 그쳐야 할지, 아니면 공개까지 나아가야 할지 내부 혼선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 원본을 열람하는데 그치면 논란만 증폭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국가기록원의) 음원과 녹취록, 기록물을 열람 (및 공개)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논란의 반복을 종식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열람파’, ‘공개파’, ‘열람·공개 불가파’ 크게 세 갈래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회의록 진본을 녹음테이프, 사전 사후 준비했던 것들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NLL 관련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자”며 공개를 주장했으나, 전병헌 원내대표는 “NLL 논란 조작과 왜곡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회의록(대화록)과 부속자료 일체를 열람할 것을 공식제안 한다”며 열람을 요구했다. 열람·공개와 관련한 혼선이 지적되자 민주당은 전 원내대표의 열람 요구는 공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같은 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열람이나 공개 자체에 반대하고 나섰다. 박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국민은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라든지 전임 대통령을 현재의 정쟁으로 끌어들여 공격하는 일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공개에 반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여로관광여행사 [순천 궁전예식장 건너편]	061)742-1270
남해여행사 [목포 한사랑병원]	061)287-410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올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가세요!

편안한 무안출발 전세기 상품

마카오직항
오감만족, 마카오 & 홍콩
7월27일,30일,8월 2일, 5일 2박 4일(총4회)

[CHPF05-NX1] *스탠리마켓*
마카오/홍콩 4일 899,000원~
※특전: 에그타르트
※특식: 얌차식,포르투갈식

[CHPF07-NX1] *오픈탑버스*
마카오/홍콩/심천 4일 949,000원~
※특전: 에그타르트,오픈 탑 버스
※특식: 얌차식,포르투갈식

[CHPF05-NXA] *쉐라톤호텔2박+마카오일관광*
마카오/홍콩 4일 1,099,000원~
※특전 : 2012년 9월 완공된 초특급 호텔 마카오 쉐라톤 (디럭스룸) 2박 숙박
※일정: 마카오 1일관광+자유일정

[CHPF05-NXC] *NO TIP+옹핑360+나이트투어*
마카오/홍콩 4일 1,099,000원~
※특전: NO TIP, 옹핑케이블카,빅토리아피크트램 탑승(편도), 나이트투어(홍콩:2층버스+야시장+스타페리/마카오:윈분수쇼+마카오타워+나무쇼)
※특식: 점보레스토랑,얌차식,포르투갈식

세부직항
천혜의 휴양지 필리핀 세부
8월7일 ~ 8월17일(총4회)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4성급 호텔 [APPF01-Z2] 세부 4일/ 5일 899,000원~
※특전 : 스쿠버다이빙 무료강습(다이빙샵 수영장) + 바나나보트, 까오비안 아일랜드 (하나투어 전용 섬) 호핑투어
※특식 : 하나팟(하나투어 전용식당) 샤브샤브

4성급 호텔 [APPF01-Z2] 세부 4일/ 5일 1,099,000원~
※특전: 스쿠버다이빙 무료강습(다이빙샵 수영장) + 바나나보트, 까오비안 아일랜드 (하나투어 전용 섬) 호핑투어, 현지식 팔빙수, 롬담 서비스 제공 (현지 과일 1kg, 할로할로 -현지식 팥빙수 제공 등)
※특식: 하나팟(하나투어 전용식당) 샤브샤브 고등리 불고기 특식

4성급 리조트 [APPF02-Z2] 세부 4일/ 5일 999,000원~
※특전: 스쿠버다이빙 무료강습(다이빙샵 수영장) + 바나나보트, 까오비안 아일랜드 (하나투어 전용 섬) 호핑투어
※특식: 하나팟(하나투어 전용식당) 샤브샤브

5성급 리조트 [APPF02-Z2] 세부 4일/ 5일 1,199,000원~
※특전: 스쿠버다이빙 무료강습(다이빙샵 수영장) + 바나나보트, 까오비안 아일랜드 (하나투어 전용 섬) 호핑투어, 현지식 팥빙수, 롬담 서비스 제공 (현지 과일 1kg, 할로할로 -현지식 팥빙수 제공 등)
※특식: 하나팟(하나투어 전용식당) 샤브샤브 고등리 불고기 특식

광주/전남 기획상품

청주출발 [광주-청주 수송비 포함] 백두산 4일 /5일
출발일 3박4일 - 7월 13일, 4박5일 - 8월 20일
7월13일 1,180,000원(북파 일정)
8월20일 1,280,000원(북파 + 서파 일정)
※불포함 사항: 개인경비
※포함 사항: 비자비용/7월 기준 유류할증료/기사가이드 팁
※특 전: 광주-청주 수송비 포함, 발맛사지, 전일정 호텔 4성급 숙박, 백두산 DVD제공(방당 제공 쁘두산 백산수 생수 증정(1인 1병)
※특 식: 천문봉 송이 비빔밥

인천출발 미동부 캐나다 8박 10일
출발일 9월 13일(금) 3,990,000원
※불포함 사항: 유류할증료, ESTA 발급 수수료(20,000원),가이드/기사팁, 물값, 선택관광 경비 및 기타 개인경비
※포 함 사 항: 왕복항공료, 항공TAX, 전일정 식사 & 입장료

집중모객
★특가★ 힐링산책 ~♬ 특급 세키아호텔♨ 북큐슈 부관훼리 3박4일 [JKP764-BKF]
출발일 6/15~ 7/17(목,금제외) 199,000원
● 특 전 ☞ 유카타입고 일본 노천온천 및 대욕장 체험
☞ 구마모토 세키아 특급 온천호텔 숙박
☞ 일본 3대 명성중 하나인 구마모토성
☞ 대표온천마을 뱃부 및 유후인 관광
● 불포함 사항 : 유류세(3만원), 기사가이드팁(4만원),선내식 2회, 국내수송

트레킹 상품

[AMK113-ZEQ] 코타키나발루 정상등정 & 산호섬 휴양 4박5일
출발일 8월 10일(토) 1,680,000원
※불포함 사항 : 기타개인경비
※포함사 항 : 인천 - 현지 공항세, 일정상의 차량 숙박, 식사, 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팁
※특전 : 스팀봇 (무제한 뷔페, 특식포함) , 산호섬 스노클링 장비 무료 대여
키나발루산 등반증명서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외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종로구청) ■관광불편신고 Tel 1577-1233 \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